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4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4호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주체91, 1월 30일

사랑하는 남녘의 청년학생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는 새 세기 첫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 갈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남녘의 동포청년학생들에게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청년학생단체들의 폭넓은 련대련합속에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기념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청년학생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킨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앞에는 청년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합쳐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하루빨리 열어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지난 1월 22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제시된 3대호소, 3대회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를 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토의확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높이 추켜들고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겨레의 통일대진군의 앞장에서 더 빨리,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올해 우리들의 투쟁과업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지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며 미제와 그에 ≪공조≫하는 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정세가 조성되여도 6.15공동선언을 유일무이한 조국통일의 리정표, 민족통일강령으로 틀어 쥐고 나가며 민족자주원칙을 거세하려는 온갖 책동에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이며 이 투쟁에 통일선봉대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입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및 련대투쟁을 강화하며 청년학생들간의 대중적이고 다양한 접촉과 교류활동을 년중 지속적으로 적극 벌려 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에 6.15민족통일대축전을 해내외청년학생들의 상봉의 장, 련대의 장으로 빛내이고 범청학련 결성 1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북과 남, 해외 청년학생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미제와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분렬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거세차게 벌려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필수적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합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온갖 반역행위들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며 미제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적론≫철회, ≪보안법≫철폐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의 합법화실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승리의 담보는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더욱 더 굳게 단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학생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굳게 손 잡고 민족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조국남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청년학생련대조직건설사업은 해내외 동포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과 해외청년학생들의 기대와 남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떠받들려 가까운 앞날에 자기의 결성을 선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녘의 청년학생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의연 애로와 난관은 있어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있고 그를 실천해 나갈 겨레의 굳은 의지와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의 첫 세대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범청학련

1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노작

2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

세기와 더불어

4 2장 1절 화성의숙(1)

칭송

6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시며
6 아 태양의 꽃
6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8

한국민족민주전선

7 불멸의 선군영도자국을 더듬으며(4)
8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8 6.15공동선언에 관통된 기본사상은 자주사상

광고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8. 천출명장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4)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12일 뉴스
10 선군혁명 천만리 – 다박솔언덕에서(3) 로동신문 정론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

12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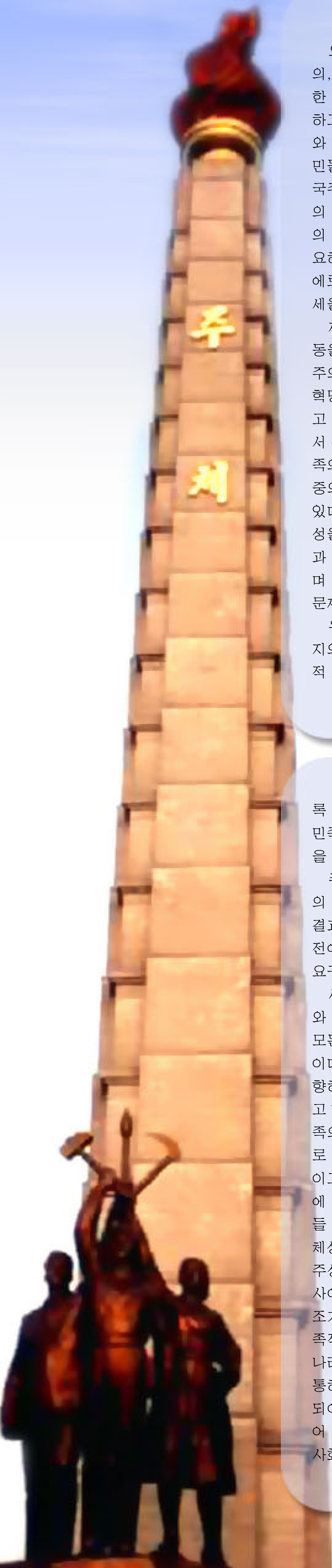
12 부시방한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12 부시방한반대 청년학생 공동투쟁
12 2002 한반도 평화선언
13 파월 대북전쟁론 배제 의미
13 전쟁 반대 수준을 넘어 강력한 ≪반미항쟁≫ 의지를
13 여, 이총재 방미 공세 / 북미대화 결의안 여야 논란
14 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성과와 한반도 정세
14 전농 정현찬 신임의장
14 선관위 앞 1인시위 전국으로 확산

운동강좌

15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1)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

주체86(1997)년 6월 19일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역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지만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힘도 자주에로 나아가는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혁명투쟁의 전 역사적 기간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튼튼히 지킬 것이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1.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을 그 자주적 본성과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고 완성되는 자주적인 혁명위업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적 인간은 계급과 계층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이며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진다. 매개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문화와 전통이 있는 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옳게 실현할 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참다운 혁명위업으로 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려는 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인민은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넋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인민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가 자기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인민대중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속에 전진해 나가도록 하자면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구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매개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 보장되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만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 이것이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관계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억제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에는 나라들 사이 민족들 사이에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국제적 위업이며 매개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하며 완성되어 나간다. 매개나라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 하여야 세계사회주의위업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선행한 노동계급의 이론에서는 그것이 옳게 해명되지 못 하였다. 유물사관의 견지에서 인류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선행이론은 민족의 형성을 자본주의의 발생발전과 결부시켰으며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민족 자체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의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 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문제로 나섰던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서 선행이론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선행이론의 사상도 당시 사회주의운동에서 절박한 의의를 가지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부식시키는 기회주의를 극복하여야 할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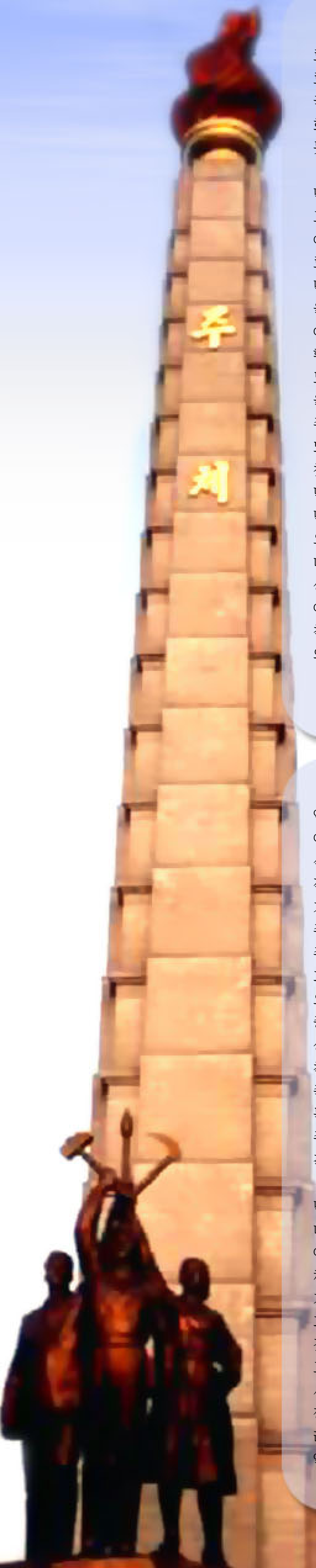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틀어쥐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벌여나가는 우리시대에 와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못 하였다. 이 나라 당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 안에서 민족부대들이 자기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하는 것을 마치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기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편견과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는 결과를 빚어내게 됐다.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완성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어느 민족에게서나 민족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인 것만큼 주체성과 민족성을 무시하면 불피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참다운 민족자주위업으

→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로 되지 못 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계급적으로도 그 지반이 점차 약화되게 되었으며 결국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좌절과 붕괴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재난을 겪고 있으며 민족분쟁의 유혈적 참화까지 빚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민족재난의 책임을 사회주의에 넘겨씌우면서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가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자본주의 보다 못한 것처럼 훼방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날조이다. 민족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민족성원들이 적대계급들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적 재부가 민족 공동의 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수단과 재부를 틀어쥐고 있는 착취계급이 관심 하는 것은 오직 돈벌이이다. 반동적 착취계급은 치부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은 제국주의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민족적 평등도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도 이룩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부강번영은 오직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민족공동의 발전에 이용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계급적 착취와 함께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청산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옳게 살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원칙적 요구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되며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민족들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며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 사이에 협조와 연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의 자주적 본성과 그 수행의 사회역사적 조건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주의와 민족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융성번영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한 사상이론을 제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을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위업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신 것은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구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당과 인민이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길을 가로막는 대국주의를 견결히 배격분쇄한 것은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었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을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면서 비방하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제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벌이던 때에도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통합경제를 강요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만일 항일혁명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신념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하고 떼부에 들어갔더라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억누르는 대국주의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 대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틈을 없앴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외세의존사상을 뿌리 빼고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되었다. 우리는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치시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본성에 맞게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지지성원하며 계급적 전우들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적 원칙을 지켰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와 반목이 격화되어 세계사회주의운동에 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우리 당은 원칙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이룩하도록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반미항전을 벌일 때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을 하면서도 아낌없는 원조와 지원을 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나라뿐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투쟁을 벌여 전 세계 진보적 역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진보적 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의 새역사를 펼쳐 놓은 우리의 투쟁성과와 경험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민족적 임무와 함께 국제적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1. 화성의숙 (1)

장례식이 끝난 다음 아버지의 친구들은 무송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의 장래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들의 보증과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난것은 1926년 6월중순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서 3.1인민봉기가 분기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선각자들속에서 새 사조를 따르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났으며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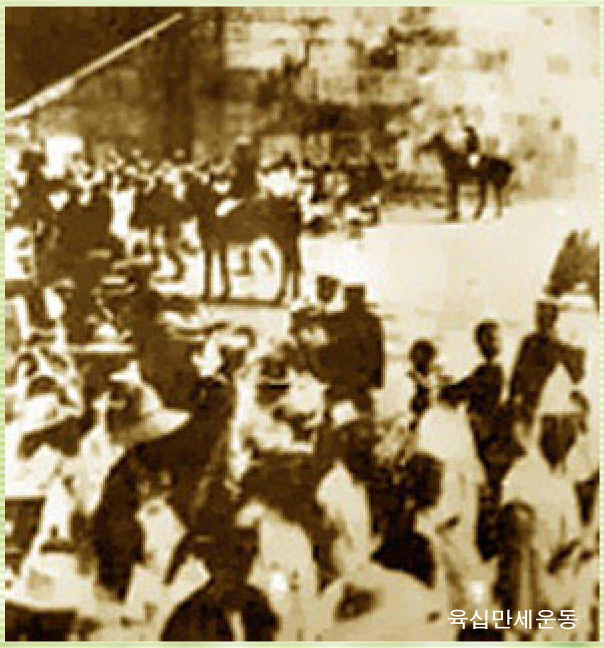
3.1인민봉기가 있은 이듬해에 서울에서는 로동공제회라는 로동단체가 출현하였으며 련이어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와 같은 대중조직들이 속출되었다.

이런 조직들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20년대초부터 무산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21년에 부산부두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다. 그후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서울, 평양, 인천과 같은 산업중심지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련속적으로 일어났다. 로동운동의 영향밑에 일본인대지주들과 악질적인 조선인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재령나무리벌과 암태도를 휩쓸었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들을 몇명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하면서 ≪민의 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추세는 이를 통일적으로 령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지도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력사적 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사상이 없고 대렬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 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사변으로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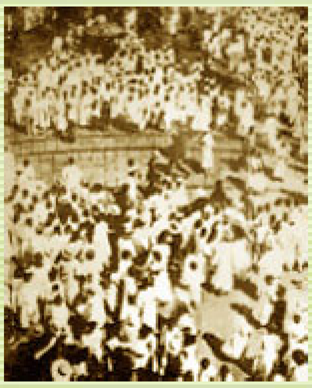


육십만세운동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반일시위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리조의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순종의 사망은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왕의 부고에 접한 조선사람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남녀로소 할 것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왕으로서 리왕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쌓이고 쌓였던 망국의 설음이 다시금 울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군악을 울리며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군중은 더욱 슬피울었다.

잘 있거라 창덕궁아
영원히 무궁히
나는 간다 북망산천
쓸쓸한 곳으로
인제 가면 언제나
또다시 오려나
2천만의 백의동포
무궁하여라



순종장례식(우)과 육십만세운동(아래)

그 통곡소리가 일본강점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자극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는 곳이 있으면 즉시에 일본기마경찰대가 출동하여 총칼과 곤봉을 휘둘러 야수적으로 해산시키였다. 소학교아이들까지도 가차없는 곤봉세례를 받았다.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탈바꿈을 한 총독정치의 진면모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탄압만행은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시위투쟁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시키였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서 알려졌다. 반일시위준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애국적 인민들은 시위투쟁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6월 10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명의 서울 시민들이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였다. ≪문화통치≫7년간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폭발한 것이다.

열두어살 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대렬을 짓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군중은 무장한 적의 군경들과 치렬한 격투를 벌이면서 용감하게 싸웠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사대사상이 3.1인민봉기를 실패하게 한 근본원인의 하나라면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종파행위는 6.10만세시위투쟁을 말아먹은 기본화근이였다. 화요파는 이 투쟁을 지도하면서 저들의 종파적견지에서 조직사업을 하였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을 발단으로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 검거되였다.

6.10만세사건을 계기로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은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세를 과시하였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파벌관념을 버리고 통일적으로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더라면 6.10만세운동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되였을 것이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6.10만세운동은 종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전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나는 그때 6.10만세운동의 결과를 놓고 제나름대로 분

육십만세운동

岩泰事件으로
小作幹部의 質問
경찰서당에게 무장경관 파송에 대하야 강경질문

암태도 소작쟁의 보도기사

석해보았다. 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 투쟁의 조직자들이 왜 3.1운동당시의 평화적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는가 하는 것이였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민대중을 한번 싸움마당에 내세우자면 그들을 충분히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훈련을 잘 주어야 한다.

그런데 6.10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한 사람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총을 든 군경들앞에 적수공권을 군중을 수만명이나 내세웠으니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설 때마다 무리죽음을 내고 좌절당하군하는 반일운동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실패는 내 피를 끓게 하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나의 의기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나는 이런 사상적 충동을 안고 아버지의 유훈, 어머니의 념원, 민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성의숙시절을 값있게 보내리라고 결심하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초에 세운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민족재생의 출로를 실력배양에서 찾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 계몽활동가들은 일반학교의 설립과 함께 군사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관학교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각지에는 신흥강습소(류하현), 십리평사관학교(왕청현), 소사하훈련소(안도현), 화성의숙(화전현)을 비롯한 여러개의 무관학교들이 일어섰다.

이 무관학교설립운동에서는 량기탁, 리시영, 오동진, 리범석, 김규식, 김좌진과 같은 독립운동의 거두들이 중심적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성의숙의 입학대상은 정의부산하 중대들에서 선발된 현역군인들이였다. 우에서 입학생수를 쪼개여 내려보내면 중대별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보냈는데 2년동안의 학습과정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새 직급을 주어 출신중대에 되돌려보내였다. 독립군밖에서도 개별적인사들의 소개로 입학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뜻을 가진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은 은근히 이 학교에 가고싶어하였다.

지금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들가운데 그 시절을 회고 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만 해도 나는 나의 전도문제와 가정살림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나의 장래문제를 비롯하여 가정을 운영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나도 자연히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거에서 오는 슬픔과 고뇌때문에 망연자실의 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겠다는 일념과 사정이 허락되면 어머니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전도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중학까지 보내주라고 유언하였지만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내가 상급학교에 가고싶어도 가겠다고 말할 형편이 못되였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비조달의 무거운 부담을 어머니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데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에서 얻어지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빈한한 가계를 유지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 달마다 학비를 대줄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 그 조수역을 하던 형권삼촌도 일조에 직업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에는 약이 얼마 없었다.

이런 때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나를 화성의숙에 가라고 권고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가운데 나의 진학문제도 포함되어있었다. 내가 상급학교로 갈때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서신을 내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어머니와 삼촌에게 주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부탁이였다.

어머니는 그 부탁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인정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각박한 세월이었으니 어머니로서는 미안한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전도문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후 무송에 남아있던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자연히 한개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동진은 의산 최동오선생한테 소개신도 보냈으니 화성의숙에 가라, 화성의숙에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것이 네 포부에도 맞을 것이다, 입씨름으로는 독립을 못한다는거야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학교를 졸업하면 그후의 전도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줄테니 의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친우들은 장차 나를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독립군지도자들이 후비유성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인재양성을 중시한 것은 좋은 일이였다.

나는 오동진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나의 전도를 그렇게도 살뜰히 걱정해주는 독립운동자들의 진정이 참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무관학교에 보내어 독립운동인재로 키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생을 조국해방위업에 바치려는 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군사적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렬에 설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견해였다.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는 화성의숙을 반일독립투쟁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화전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어떤 정객이 나보고 주석님은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되어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가게 되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성의숙에 입학한 것은 아직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나의 세계관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리념으로 완전히 삼을만큼 원숙한 단계에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공산주의를 지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었다면 무송에서 ≪사회주의대의≫와 ≪레닌의 일생기≫라는 소책자를 읽은 것뿐이고 사회주의리념이 실현된 신생쏘련의 발전모습을 풍문으로 들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끝없이 동경하였을뿐이다.

내 주변에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으니 고장을 옮길 때마다 내가 다니던 여러 학교의 선생들은 공산주의사상보다 민족주의사상을 더 많이 고취하였다. 우리는 새 사조에 의해 교체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반세기이상의 력사를 가지고 있은 민족주의의 포위속에 있었다.

의숙에 끌끌한 청년들이 많고 정치교육과 함께 군사교육을 하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화전으로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학비를 댈 힘이 없으면서도 상급학교에 갈 희망과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려는 포부를 동시에 품고 있은 나로서는 그보다 더 리상적인 교육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화성의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2년동안 의숙의 교육을 받느라면 중학과정안은 물론, 군사를 하나 더 배우게 되리라는 흐뭇한 생각도 들었다.

(내일 계속됩니다)

화성의숙기숙사

일화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시며

1968년 1월에 조선동해에서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공화국의 영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일당백의 용사로 키워내신 조선인민군이 조국과 민중의 안녕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자기를 국제헌병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횡을 부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던 미국이 된매를 얻어맞고 어쩔줄을 몰라하며 당황망조해 하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때 미국은 어리석게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을 부추겨 이북에 간첩선과 승무원들을 돌려보내라고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파렴치한 군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베트남전선으로 출동중이던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제7함대소속의 수많은 함선들을 조선해역으로 돌렸으며 오키나와 주둔 미군 2개 비행대대를 이남에 급파하고 주한미군과 국방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렸으며 미전략공군사령부 예하 추격기무력에도 경계령을 떨구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사태를 주시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평양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군으로 개편한지 스무돌이 되는 날을 뜻깊게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연회연설에서 미제가 이 사건을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는 것,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연회장에 폭풍같은 갈채가 일 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곁에 앉은 인민군 총정치국의 한 책임일군에게 외국인 초대석을 눈길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저 사람들을 좀 보시오.≫

그 일군이 외국인 초대석 쪽을 바라보니 그들은 눈이 둥그래진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미국이 원산을 폭격하겠다, 청진을 폭격하겠다 하고 무시무시한 호전적 망발을 함부로 떠벌리면서 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때에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그렇듯 폭탄같은 선언을 내릴줄은 상상도 못한 그들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연설에 접하여 격앙된 심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 일군에게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무비의 담력을 가지고 적들과 맞서 견결히 싸우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고나서

≪이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가 아주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두고 보시오.≫

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었다.

정녕 그것은 천하무적 영장의 심중을 드러내보인 저력있는 선언이었다.

그후 이북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 선언의 참뜻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북에서는 적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졌다.

각종 현대적 무장장비들이 두터운 방수포를 벗어던지고 전투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완전무장한 군종, 병종 예비구분대들이 지정된 작전계선으로 진출했다.

전체 민중은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밤까지는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한 당과 수령의 의지를 받들고 더욱 세찬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었으며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와 같은 큰 대회가 예정대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한편 수많은 청년들이 원쑤격멸의 투지를 안고 인민군대에 탄원해 나섰다.

송시

아 태양의 꽃

신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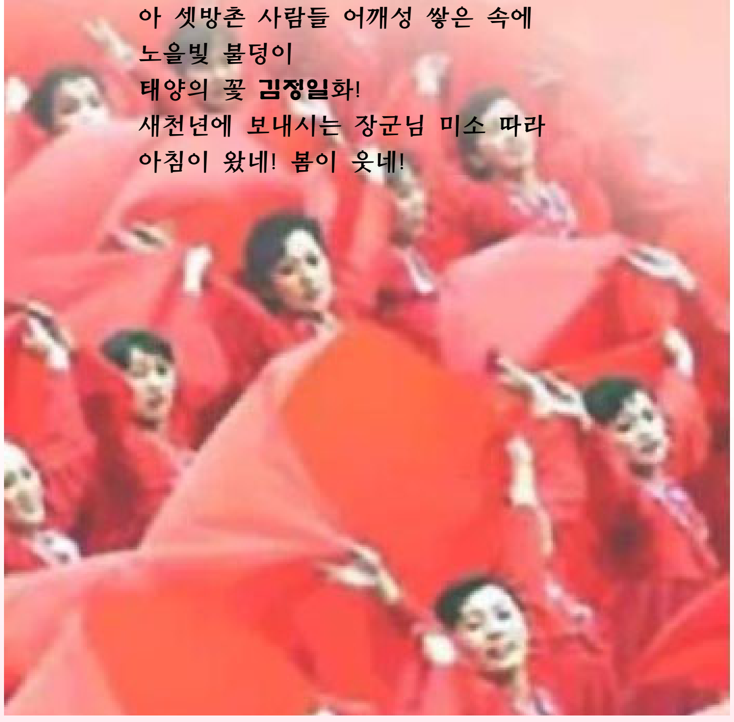
꽃이 폈네
세종로 셋방촌 우리집 창가에
꿈같이 피어났네
아름다운 **김정일**화

가난에 눌려사는 밑바닥 인생들
쌓인 설움 가시라고
꽃송이 그리도 크고 눈부실까
꽃빛깔 그리도 열정에 붉게 탈까

두리가 환해지고 마음도 따뜻하네
해돋이 순간처럼 빛을 뿜는 꽃송이
우리집 창가에 해님이 떴네
김정일영수님 태양의 영상 어려오네

민중 위해 뿌리시는 사랑의 미소
햇빛으로 내려 서울어둠 쫓겨가네
겨레를 품으신 뜨거운 열정
꽃향기로 넘쳐 얼음장벽 무너지네

아 셋방촌 사람들 어깨성 쌓은 속에
노을빛 불덩이
태양의 꽃 **김정일**화!
새천년에 보내시는 장군님 미소 따라
아침이 왔네! 봄이 웃네!



흠모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지난해 4월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돌에 즈음하여 일본 도쿄에서 현시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국제토론회가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은 주체사상밖에 없다는 것을 내외에 널리 선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주체사상연구 보급활동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아라끼 도요히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시는 선구자로서의 비서의 사상이론활동을 적극 따라 배워 나갈 것이며 이는 오늘 날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다.≫

좌담회참가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좌담회에는 **김정일**주의연구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끼다 요시하루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오끼다 요시하루는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할수록 탁월한 사상이론가로서의 **김정일**비서의 위대성을 절감하게 된다.

김정일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주체사상이 창시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주체사상은 심원한 사상이며 이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비서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주석의 회고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며 현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김정일**비서의 업적은 위대한 것이다.

지난 해 **김정일**비서께서 발표하신 역사적 문헌들인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통해서도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서께서는 문헌들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정확히 밝히시고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었다.

나는 이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불멸의 선군영도자국을 더듬으며(4)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주체91 2월 6일～8일

4. 혼연일체의 대화폭

고난의 행군의 역사에 잊지 못할 또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은 고난을 진두에서 헤쳐나가신 **김정일**장군님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그분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수령과 군민간의 혼연일체의 역사였다.

고난의 행군은 민중에 대한 영도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영도자에 대한 민중의 신념이 어떤 것인지 세인들앞에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준 위대하고 성스러운 나날이였다.

고난의 시기에 영도자와 청년들, 영도자와 민중들 사이에 오고간 혼연일체의 정이 얼마나 깊고 강렬했던가를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은 수없이 많다.

≪노반위에 해가 뜨면 장군님 그립습니다≫라는 글발을 수십미터 길이의 대형속보판에 써붙이고 백리청춘노반을 닦아간 평양-남포사이의 청년영웅도로 건설자들이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5만명 대합창으로 불러 만사람의 심장을 울린 그 가슴 뜨거운 장면을 어찌 눈물없이 대할수 있으며 세월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디에 계실까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까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고난의 시기에 군대와 민중의 입에서 떨어질줄 모른 주제곡이라 하겠다. 아니 이 노래는 영도자와 민중간의 영원한 혼연일체의 주제곡으로 불리울 것이다.

고난의 나날에 전당, 전군, 전민이 6.25 전쟁시기 적후천리 먼 곳에서 장군님을 그리며 기어이 최고사령부를 찾아간 여전사의 그 불덩이같은 심정을 안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고난을 헤쳐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고난의 나날에 영도자와 군민사이에 맺어진 혼연일체는 사상과 뜻도 하나일뿐아니라 피와 정, 그리움으로 통하는 세상, 가장 진실하고 절절하고 순결한 혼연일체였다.

세계마라톤 여왕 정성옥선수는 105리 전구간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달려 우승했다.

그리움, 세상에 이 말처럼 사람의 심장을 강렬하게 울리는 말은 없으리라.

인간의 불타는 마음,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정과 그지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일편단심이 이 한마디말속에 담겨져 있다.

사상적 공통성이 인간적인 정으로 흐를 때 그 관계야말로 진짜 혼연일체라고 말할수 있다.

정으로 통하지 못하는 사상, 그리움이 없는 중대는 냉정한 이해타산이나 실무적인 융합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이 정으로 통하고 정이 사상으로 통하는 완전무결한 혈연의 세계야말로 수령과 민중이 창조하는 위대한 생활이라 하겠다.

여기에 땅위에는 준엄한 나날이 흘러갔어도 영도자와 민중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뜨겁고 깊은 정이 오갔는가를 감동깊게 말해주는 민중의 심장의 고백이 있다.

잊지 못할 자강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귓전에 쟁쟁히 남아 있다.

고난의 흔적이 얼굴이며 옷차림에 역력히 새겨있던 여인, 어려웠던 그 나날에 남편도 잃고 혼자서 아들딸 세자식을 먹여살리느라 별의별 고생을 다 겪은 그 여인의 한마디 말이 왜 그리도 나의 가슴을 쳤던가.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나요. 그러나 진짜 고생은 장군님 그리운 고생이였습니다.≫

그 어느 철학가인들 이런 말을 할수 있으며 그 어느 문장가인들 이런 말을 지어낼수 있으랴. 장군님 그리운 고생, 이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이북 민중에게서만 들을수 있는 참으로 눈물겨운 심장의 언어이다.

장군님 타신 궤도전철을 보고 군인들과 대학생들, 여인들과 아이들이 장군님을 목메어 부르며 힘이 진할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간 그 아름다운 화폭. 초소에 오신 장군님품에 온 중대가 안겨 행복의 노래 부르고 그분께서 떠나실때는 너무 아쉬워 사병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서던 이야기, 옥수수죽을 먹으면서도 ≪어머니,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회칠을 해놓으세요. 혹시 장군님께서 우리 집앞을 지나가시다가 어지러운 걸 보시면 또 걱정하실께 아니나요.≫라고 하며 회뜨락을 알뜰히 거두었다는 한 이름모를 소녀의 가슴뜨거운 얘기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이나 몇자의 글로 표현할수 있겠는가.

자강도 낭림땅은 지금도 눈물에 젖어 있다. 굽이굽이 험한 영을 넘어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그날로부터 날과 달, 해가 흘렀건만 영광의 그날에 받아안았던 그곳 사람들의 감동과 그리움은 좀처럼 식을줄 모른다. 누구를 만나보나 그날의 이야기만 꺼내면 눈물부터 앞서는 낭림사람들이다.

≪지금도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집을 떠난 자식들도 한번 찾아오기 쉽지 않은 이 산골에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오실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굉장했습니다. 사적관쪽에서 만세소리가 나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 산에서 감자밭을 일구던 사람들, 남녀노소할 것없이 하얗게 읍거리로 달려나왔는데 내의바람에 뛰어나온 사람,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온 사람, 지붕위에 올라가 장군님께 드리자고 길가의 코스모스를 한아름 안고 달려온 사람. 마치 제방의 물목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의 물결이 건잡을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와!≫하고 거리로 달려나갔는데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차창문을 여시고 손을 흔들어주시는게 아니겠어요. ≪장군님≫하고 목메어 부르고 또 부르며 장군님 타신 차가 멀리 령길로 사라질때까지 정신없이 따라 달렸습니다.≫

듣고 들어도 끝없는 얘기, 쏟고 쏟아도 바닥이 없는 그 그리움의 세계는 낭림의 높은 령을 넘어 이북땅 그 어느 곳 그 누구에게나 다 이어져갔다.

그리움은 어려운때 더 간절하다. 어려우니 그립고 괴로우니 그리웠다. 비가 오니 그립고 눈이 오니 그리웠고 해가 뜨니 그립고 해가 지니 그리웠다. 그리움은 먹을수도 없고 돈으로 살수도 없으며 권력으로 강요할수도 없다. 거짓도 꾸밈도 없는 인간의 순정이고 심장의 매혹인 그리움은 고난속에서 피와 정을 나눈 위인에게 드리는 민중의 완전무결한 믿음이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영상을 그려봅니다

라는 노래와 함께 너무도 조용히 민중에게 오셨던 장군님이시다.

그분께서는 고난의 나날에 민중들앞에서 단 한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고 공식연단에 나서시어 연설 한마디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보다 고뇌를 많이 겪으셨고 어느 시기보다 민중과 말없는 심장의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

장군님은 기뻐도, 슬퍼도, 더워도, 추워도 언제나 민중과 함께 계셨다.

고난의 시기 사람들은 제 한 몸이나 제 한 가정의 고통만을 이겨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장군님은 천만의 매사람, 매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다 걷어안고 다 직접 속속들이 묶이며 다 풀어나가야 하셨으니 그분의 가슴속에 들은 고뇌의 피눈물인들 얼마였겠는가. 오늘에 와서 보면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국만큼 승리의 길이 열리고 그분께서 바치신 희생의 댓가만큼 나라의 짐이 덜어졌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민중은 영도자를 사랑했고 더욱 받들고 따랐다.

세상을 돌아보면 재난의 시기에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에 피란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심지어는 개인의 안락을 위해 민족의 존엄을 팔고 안락의 세계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형언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떠나지 않고 자기 수령을 옹위하고 자기 제도, 자기 사상을 지켜 영도자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산악처럼 일어선 민중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세상 유일의 이북 민중이다. 이북 민중은 모두 영웅이다.

영웅민중이 지닌 그 위대한 정신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도자에 대한 순결한 의리, 양심, 그리움이였다. 그리움으로 이어진 이 시련의 6년간 고난도 이기고 강적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다.

영도자는 민중을 그리고 민중은 영도자를 그리며 혼연일체가 되어 피어린 격전의 폭풍우를 헤쳐온 6년. 이 위대하고 장엄한 혼연일체의 대행군속에서 영도자는 민중의 영원한 믿음을 얻었고 민중은 영도자의 영원한 사랑을 입었다.

수령과 민중의 이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대화폭이 그나마 6년이 아니라 60년, 600년이 걸려도 이룩할수 없는 기적을 낳았다. 세계는 그 혼연일체의 대화폭에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밑에 솟아날 강성대국의 찬란한 모습을 보았다.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1일~12일

얼마전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조치, 획기적인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족자주통일위업은 6.15공동선언이 펼쳐든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지침으로 실현해나가는 거족적인 위업입니다. 올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의 목표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의 봄, 자주통일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는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는 이로부터 출발하여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선언,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고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은 자주통일입니다. 자주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면 자주통일이 이룩됩니다. 자주통일의 추동력도 공동선언에 있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도 공동선언이행에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선봉에 서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야합니다. 그러자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 정당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심화시켜 꾸준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북의 합동회의가 제시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각계 민중이 적극 지지동참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무력증강,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단합으로 향하던 겨레의 통일열망에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찬물을 끼얹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운동, 무기강매반대, 북침전쟁연습반대 등 반미투쟁들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더욱 심화시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몰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 역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통일성업이 이룩되면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자기의 생존기반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어떻게해서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보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올 정초에 들어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우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이회창은 지난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떠벌이다 못해 대양 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상전들에게 연일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애걸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매문지들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비방해나섰습니다. 현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줍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해 투쟁경험을 적극 되살려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과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를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비롯한 합법적 투쟁공간을 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고 조선일보매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주적론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좀더 당당하게 벌이고 더욱 완강히 꾸준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선봉장이 되어 과감한 투쟁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에 관통된 기본사상은 자주사상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1일~12일

오늘 우리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 구호에는 철두철미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주체의 힘과 지혜,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민족자신의 위업입니다. 조국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자주위업이기에 우리 민족은 그것을 민족의 숙원으로, 민족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국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또 우리 민족이 바란다고 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는 외세가 조국통일을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떨쳐 일어나 투쟁으로 쟁취해야합니다.

우리 민족의 공동의 이익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그 수행방도 가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으로 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구성원 모두는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을 갖고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력한 무기인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이같은 철학적 원리에 토대해서 통일문제를 고찰해 볼때 바로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 역할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올바른 입장과 자세,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그 자주적 입장,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면 민족의 존엄과 권위, 이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주적 입장을 줴버리고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나중에는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난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는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 입장,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는 문제는 이처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입니다. 내외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고수하고 견지해야할 원칙은 다름아닌 자주의 원칙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관통된 6.15남북공동선언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 아부굴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과 반통일분자들이 외세와의 공조를 부르짖으며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반통일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면 조국통일이고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면 민족의 영구분열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실천투쟁에서 위대한 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민족자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이북의 제정당단체합동회의에서 발표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 호응해서 그 실천투쟁에 헌신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2일

미일 전략적대화란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공모결탁

≪로동신문≫ 12일부는 미국과 일본이 국제테로문제, 중국과 조선반도문제를 포함한 ≪안보≫와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전략적대화≫란 다름아닌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공모결탁이라고 락인찍었다.

론평의 필자는 힘으로 세계지배를 추구하는 미국과 해외팽창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일본이 저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전략적대화≫의 미명밑에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론평은 특히 일본반동들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며 군사작전무대를 확대하고 있는것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세계여러 분쟁지역에 뛰여들어 국제경찰의 역활을 수행하며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일의 군사적공모결탁의 과녁은 당면하여 조선에 돌려 지고 있다. 미일의 ≪전략적대화≫에서 조선반도정세가 주요의제로 상정되고 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쉬정권의 군사적압살정책에 일본이 적극 가담협력하려는 자세를 드러낸것이다.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은 주일미군을 강화할수 있도록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정비보강하며 미국과의 공동군사연습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능신형무기개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역미싸일방위체계의 연구와 전개를 다그치고 있다.

미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일군사동맹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조선반도정세가 파국적상황에 이르는것은 일본과 미국에도 결코 리로운것으로 되지 않을것이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미국과 일본이 제창하는 ≪전략적대화≫란 다름아닌 미일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속되는 2.16경축행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평양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민문화궁전에서는 11일 2.16경축 전국웅변대회 중앙경연입선자들의 시범출연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선군시대의 송가≫와 2.16경축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가 진행되였다.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웅변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여 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천출위인적풍모와 숭고한 인덕,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감동깊이 구가했다.

이날 동평양대극장에서는 2.16경축 제30차 전국농업근로자예술축전종합공연이, 봉화예술극장에서는 2.16경축 각도 인민보안국 예술소조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각 부문의 종합공연 출연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들에서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활동사진전시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꾸바 **김일성**경제전문학교에 새로 꾸려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사진전시관이 7일에 개관되였다. 전시관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다.

또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영국전국위원회결성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영국전국위원회가 1월 20일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 키스 벤네트가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전국위원회는 태양절과 2월 16일에 즈음하여 대회, 강연회, 영화감상회와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등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국에서 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슈로동당과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가 2일 공동성명을,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이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선통일의 리정표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민족적단합을 도모할데 대한 합동회의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도발책동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향해 나설것을 성명들은 요구하였다.

성명들은 미군이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음력설을 맞으며 각지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음력설을 맞으며 조선 각지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12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평양시내 각계각층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은 만수대언덕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성 등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동상에 각급 기관, 조선인민군부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만수대동상을 찾아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아 11일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백두산상≫ 체육축전 개막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상≫ 체육축전이 개막되였다.

축전에서는 롱구, 배구, 탁구, 마   라손, 프로권투, 사격, 활쏘기, 빙상호케이, 빙상휘거, 씨름 등 18개의 종목별 체육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축전 개막식이 11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를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1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대통령전권대표는 **김정일**령도자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자신의 선물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손님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접견을 마치신 후 대통령전권대표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회에는 로씨야련방 원동구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제1부대표 위또르 안드레예비치 뜨레구보브, 그밖의 수행원들,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와 대사관 공식외교관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 박재경 등이 참가하였다.

연형묵은 축배사에서 뿔리꼽스끼의 이번 조선방문은 서로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수뇌분들의 의도와 기대를 실천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하나의 큰 걸음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조선과 원동사이의 협조관계가 활력 있게 발전하여 조로모스크바선언의 리행에 중요하게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뿔리꼽스끼는 축배사에서 로씨야련방 웨. 웨. 뿌찐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친근한 조선땅에서 베풀어 지고 있는 친절성과 따뜻한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2000년 7월과 2001년 8월에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웨. 웨.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공동선언들에 조인하심으로써 로조관계는 현시대의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질적성격을 띠게 되였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최고위급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되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나라의 형편을 개선하고 사회경제발전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만찬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선군혁명 천만리
제1편 다박솔언덕에서(3)

로동신문 정론 주체90, 12월 15일

여기에 선군시작길의 깊은 사연을 파헤쳐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울던 7월의 어느 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령전에서 오열을 터치며 호상을 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건군절에 하신 육성록음을 듣도록 류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비장한 추도곡을 울리며 민족의 어버이와 영결하는 마당에서 장군님께서 왜 부디 수령님의 육성을 듣도록 해주시였는지 인민군지위성원들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였다.

이날도 붉은기에 싸여 계시는 수령님앞에 서시여 쏟아지는 비분의 눈물을 가까스로 억제하시며 마음속깊이 필승의 신념을 굳게 다지신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나는 지금까지 수령님께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왔다, 정말 수령님을 잃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허전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군대가 있다, 나는 이제부터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결심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령전에서 피눈물의 무게로 다진 이 결심을 안고 찾으신것이 다박솔길이였다.

결국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찾아 다박솔초소에 가시였다. 그 잊지 못할 설아침 다박솔병사들과의 눈물겨운 상봉은 바로 수령님과의 상봉이였다.

수령님을 잃은 우리 장군님의 마음의 공백을 메울수 있는것은 오직 군대였다.

빨찌산 김대장의 불멸의 존함이 새겨진 ≪백두산≫총을 손에 잡은 군대, 나를 받들었듯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라는 수령님의 유훈을 피로 새긴 군대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혁명투쟁에서는 전사에게만이 아니라 수령에게도 믿고 의지할 마음의 기둥이 있다.

오늘날 장군님의 마음의 기둥은 인민군대이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어제날 수령님이 마음의 기둥이였던것처럼 오늘은 인민군대가 마음의 기둥이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군대는 수령님을 대신할만큼 귀중한 제1의 동지, 가장 믿음직한 전우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백두산눈보라가 폭풍친 선군혁명의 피어린 일곱성상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셨다. 괴로와도, 슬퍼도 수령님과 함께 말 없는 심장의 말을 나누시였고 생사결단의 사지판을 헤칠 때도 수령님과 함께 어깨 겯고 헤치시였으며 고난의 무거운 짐도, 가슴벅찬 승리의 희열도 수령님과 함께 나누시였다. 우리는 그 수령님이 바로 인민군대였다고 말한다.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세워 주신 장군님의 선군혁명관, 다박솔길의 시대적 높이가 여기에 있다.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것을 다 각오하시였다.

허리띠를 조이고 선군길에 나서는것이 남의 집 울타리밑에 사랑하는 혈육을 놓고 혁명, 혁명을 부르짖으며 백두산으로 들어가던 항일전만큼 모질고 가혹한 혁명이라는것을 아시였다. 한해후에는 식량난이 들이닥치고 또 한해후에는 거리와 마을에 불빛이 꺼지고 또 한해후에는 패배주의자, 동요분자, 변절자도 나올수 있다는것도 다 내다보시였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피눈물 안고 다박솔에서 시작한 이 길 힘들어도 가리라, 쓰러져도 가리라, 승리하는 그날까지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웨치시며 선군길에 오르시였고 폭풍을 맞받아 해연마냥 돌진해야 하는 격렬한 싸움에 바로 자신처럼 믿을수 있는 인민군대와 어깨 겯고 나서시였다.

그렇다. 장군님께서는 군대를 수령님처럼 믿고 오늘의 백두산길인 선군혁명결사전에 나서시였다.

장군님과 인민군대의 이 운명적인 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군님께 있어 군대는 생의 태를 묻고 자란 고향이고 요람이며 세상에 나서 처음 본 조국, 첫 인연을 맺은 동지이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유일하게 운명을 함께 할수 있고 완전무결하게 믿을수 있는 변할수 없는 마음의 기둥, 절대적인 지지자이다.

장군님은 할아버님도 총을 잡은 반일애국투사이시고 두분의 부모님도 빨찌산장군이신 위대한 군인가정의 3대피줄을 이으시여 백두산전구에서 삶의 고고성을 터치시였다.

어리신 몸에 유격대복차림으로 빨찌산대원들과 함께 군함을 타고 조국에 개선하셨고 당년 10살때에는 포성이 울려오는 최고사령부에서 수령님으로부터 만경대와 백두산혁명가문의 3대가 이어 가는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장군님, 주체위업의 계승의 대를 굳건히 이어 준 잊지 못할 삼지연의 새벽길도 빨찌산뿌리, 빨찌산군력으로 마련되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2월 19일의 온 사회주체사상화강령도 군부를 곁에 끼고 선포하시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80년대의 번영기도 군대의 힘으로 안아 오시였다.

수령님과 장군님과 군대는 백두산과 더불어 한피를 나누고 력사에 등장한 하나의 생명체였다.

장군님의 고향도 백두산이고 우리 군대의 고향도 백두산이다. 장군은 자신의 태줄기, 자신의 살붙이와 같은 군대를 떠나 살수 없고 군대 또한 자기의 피와 목숨, 승리와 영광의 전부인 장군을 떠나 존재할수 없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산아인 조선인민군은 수령과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수령의 용맹으로 다스려진 이 세계의 유일한 정예군, 영광스러운 ≪**김일성**군≫, ≪**김정일**군≫이다.

피는 숨길수 없다. 장군님께서 장차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병사들을 찾아 다박솔길로 가신것은 달리는 될수 없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장군님의 길, 백두산의 론리였다.

다박솔, 너는 안을수록 위대하고 성스럽구나, 너는 결코 이 땅에 한점으로 찍혀진 언덕만이 아니다.

백두산장군과 백두산군대가 혼연일체의 무진장한 힘을 폭발하며 지구의 머리우에 선군혁명의 총대진리를 뢰성처럼 울린 너는 혁명의 최절정, 세계의 상상봉이다.

그래서 장군님은 다박솔을 잊지 못하신다.

그래서 인민은 다박솔을 사랑한다.

3

위대한 력사의 기적을 보고 있다.

다박솔, 얼마나 준엄한 격전의 포성이 너와 함께 울렸고 또한 얼마나 거대한 사변과 가슴 벅찬 승리들이 너와 함께 왔던가.

기적의 다박솔, 행운의 다박솔이다.

운명의 이 언덕을 내려 승리의 오늘까지 이 나라의 어디에나 피 붉은 폭풍의 선군전역을 헌헌히 누벼 오며 근 7년이 흘러갔다.

7년은 짧았다.

그러나 력사의 순간과 같은 이 나날에 장군님께서는 70년, 700년을 두고도 이룰수 없는 극적인 변혁들을 안아 오시였다.

지난 9월 멀리 전선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몸소 시범문답식학습경연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젊은 세대들이 연단에 나와 선군정치의 생활력에 대하여 열정에 넘쳐 대답하는 모습을 류다른 감회속에 바라보시였다.

너무도 범상한 이날의 이야기가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세찬 파동을 일으켰던지 그이께서는 깊은 밤 일군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전선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선군정치에 대하여 흥분에 넘쳐 대답하는 것을 보고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인민들에게 선군정치의 진리성에 대하여 웅변으로 말해 줄 때가 됐다. 우리는 크게 이겼다.≫

라고 격정어린 어조로 발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오늘의 승리를 얼마나 가슴저리게 바라셨으면, 인민의 지지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평범한 새 세대들의 말에 그처럼 커다란 감흥을 받으셨으랴.

그렇다.

우리는 빈 배낭을 메고 이 언덕에 서지 않았다.

≪우리는 맹세한다≫는 피눈물의 노래를 부르며 장군님따라 여기에 첫 자욱을 내디딘 우리가 오늘은 ≪강성부흥아리랑≫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행군≫을 추억하게 되였다.

모든 것의 가치와 의의는 겪어 보아야 알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였다.

우리는 다박솔에서 시작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그처럼 살을 에이고 뼈를 깎고 자욱자욱 피땀을 고여야 갈수 있는 길인줄 다 몰랐다.

근 7년 세월 말그대로 빨찌산을 하시며 전선에서 전선에로 낮에 밤을 이어 달리신 장군님의 수십만리전선길,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길인가.

육체만 부시면 갈수 있는 길도 아니였다.

전선은 멀고 공장은 가까왔으며 총대보다 쌀이 급했던 그 세월, 재난 당한 조국의 숨죽은 공장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정상을 매일같이 보시면서 이 길을 가시자니 오죽했으랴.

그러나 겪은 고생은 쓰리고 아파도 오늘의 승리는 얼마나 달고 큰가.

이런 크나큰 승리를 안아 오시자고 장군님께서 그리도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신것이 아니랴 하는 생각이 가슴을 두드리는 이 시각 우리는 이 위대한 천만리의 첫 걸음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 본다.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하였으며 우리는 얼마나 강의한 의지로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안아 왔는가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앞에 최대의 경의를 드릴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의 영생을 가장 빛나게 지켜드린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체현자, 승리자로서 시대앞에 서게 되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린 대결전에서 붉은기를 지켜내고 사회주의 운명을 수호한 포성없는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인류앞에 서게 되였다.

상상도 못했던 사변들을 체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의 세계사적승리와 더불어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보고 있다.

(내일 계속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70회

김경희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2일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 서거 100일 추모회가 있은 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루바삐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추대하고 새로운 역사적 진군길에 나설 열망에 넘쳐있었습니다. 인민들이 이러한 절절한 소망을 담은 편지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촌, 전연 초소로부터 매일과 같이 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성의 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어버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만 전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 오시면서 역사적으로 하신 결실을 몇백 몇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당내의 혁명적 전술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시면서 특히,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 2동굴건설을 끝내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쇠밧줄로 된 청류다리를 모란봉 청류벽 쪽으로 연결해 놓고 모란봉 밑으로 길을 뚫고 **양측을 연결하게 된 이 공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써 우리 인민의 유족하고 훌륭한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게 될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인 청류다리 2단계와 ** 2동굴은 당창건 50돐을 기념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평양-향산 사이의 관광도로 건설도 성과적으로 끝내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경제건설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버이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전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마음 속에 높이 우러러 모시였으며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 속에 큰 빛으로 계셨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게 모든 혁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일찍이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70여성상의 기나긴 세월, 연대와 연대를 이어온 우리 인민의 고귀한 전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3년동안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열망은 전당, 전군, 전국에 차넘쳤으며 그것은 ****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주체86(1987)년 9월 하순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을 반영해서 조선로동당 *** 대표들, 도직할시 대표들, 군중앙 및 도, 당****하는 당조직들의 토론회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일을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주체86(1997)년 10월 8일 전당의 의사에 따라 30여 성상의 오래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으로 우리의 당을 백전백승의 노숙하고 세련된 혁명적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정당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방식의 추대사였습니다. 역사에 노동계급의 첫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한 세기가 훨씬 넘는 *** 수많은 공산당, 노동당들에서 자기당 수반을 추대하는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 중앙적인 회의들에서 선포하고 결정하는 실무적인 방식으로 당수반을 내세우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지난시기 사회주의 집권당들에서도 선대 수반이 서거하면 이러저러한 비상회의들을 열고 즉시에 당수반직을 결정이었습니다. 정당수반추대사에 **한 온갖 관례를 마스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식으로 당 총비서를 추대한 것은 영도자가 위대하고 영도자와 인민들이 ********** 오래 역사적 행정에서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인 혁명적 관계로 맺어진 혼연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한것은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의는 우선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가지게 됐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의의는 다음으로 우리 당과 인민들로 하여금 붉은기를 치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의의는 또한 우리 당의 국제적 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전반적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이 더욱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미제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때인 주체86(1997)년 10월 11일 외국의 한 방송은 이와같이 전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북조선이 식량난으로, 또 미국과 국제관계의 끈질긴 포위와 압력에 못이겨 얼마 못 가서 붕괴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과 억측, 가정을 앞세우며 여기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번에 북조선은 **김정일**최고영도자의 당총비서 공식 추대로 그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부정해 버렸다.≫ 방송은 계속해서 ≪이번 당총비서로 추대되신 **김정일**최고영도자께서는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유한 공산주의 정치수령이시고 놀랄만큼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충실성, **성을 지니신 현대 공산주의 정치가, 군사가 이시라는 것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이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위업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반제 투쟁과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이끄시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선거를 주체79(1990)년 4월 22일에 진행한 것만큼 헌법대로 하면 주체84(1995)년에 제10기 대의원선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체84(1995)년은 어버이 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최대의 국상을 당한 다음해로써 *상기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운구앞에서 목놓아 울던 비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만세를 부르는 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뒤인 주체87(1998)년 5월 20일에야 최고위원회 ***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관련해서 주체87(1998)년 7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함께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며 선거를 계기로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행정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주체87(1998)년 7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89프로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선거자들은 100프로가 등록된 대의원 후보들에게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구현한 우리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념의 표시였으며 당과 수령의 영도따라 인민정권을 끝까지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기초해서 주체87(1998)년 9월 5일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인민과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안 사회주의 헌법을 심의한 데 이어 온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을 반영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수십성상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제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9.11테러이후 반테러전쟁을 펼치고 무고한 아프간 민중들을 학살한 미국의 우두머리 부시. 지금에 와서는 반테러전쟁의 확산을 공공연한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확전대상에 이라크 등을 운운하며 얼마전에는 북을 ≪악의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접경의 엄혹한 정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시의 방한! 결코 그냥 보아넘길 수 없습니다.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자하는 부시의 방한!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서 반대하고 기어코 막아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전쟁책동, 6.15남북공동선언 파탄내는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제안서

수신 : 서울지역 제 단체
발신 : 조국통일범민족서울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내용 : 2.16 부시방한 저지 서울지역 결의대회 제안 및 참가 요청의 건

1. 배경

이미 600여개가 넘는 시민, 사회단체가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시방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울지역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20일 대규모적인 투쟁을 앞둔 조건에서 서울지역 차원의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이를 통해 부시방한 반대의 여론을 서울지역에 확산 고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시는 최근 발언과 자국의 입장에서 이미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마치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적국으로 간주한 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연일 미국의 고위관계자가 이북의 위험성 운운하며 악의 축 발언을 보충하는 근거없는 미사일 위협등을 말하며 한반도 정세를 전쟁격화에로 몰고 가고 있는 조건입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함은 그대로 부시방한을 통해 한반도와 한국에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전쟁국면을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론의 중심지인 서울지역 반미투쟁의 지와 부시방한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은 이러한 부시의 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중요할 것입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2년 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종묘공원(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3. 주최

1안≫ 모든 참가단체 연명
2안≫ 서울통일연대와 그 외 참가단체

4. 당일 투쟁흐름

- 2시 집결 및 사전행사
- 3시 본집회 시작

민중의례
대회사
투쟁사
연대사
정치발언 1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민족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일이다!
정치발언 2 – 서울시민이 앞장서서 부시의 한국방문 저지시키고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문화공연
결의문낭독
상징의식
행진(명동 또는 종묘공원)

- 5시 정리집회

부시방한반대 청년학생공동투쟁

한총련, 다함께, 전국학생연대회의, 21세기 진보학생연합, 학생행동연대

1. 부시방한반대 공동투쟁의 의의와 목표

- 패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 경제적 영역에서의 부시의 대한반도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청년학생들의 선봉투쟁 단결투쟁을 결의한다.
- 올해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전개될 반전반미 투쟁에 대한 청년학생 제 단위의 공동투쟁 결의를 모은다.
- 투쟁속에서 청년학생들의 연대와 단결의 기운을 높인다.

2. 요구안

1)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 중지하라
2)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3) 엠디□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6)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7)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 부시방한반대 제단체 · 연대단위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요구안과 동일하게 한다.
** 청년학생대회인 만큼 청년학생 독자적인 요구안을 상정하자(추후 논의결정)

3. 집회 기획안

1) 집회명칭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투자협정 저지!
부시방한반대 청년학생대회

2) 일시 및 주최단체
- 2월 20일 1시
-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 학생행동연대, 반전위원회(녹색연합늘푸른청년모임, 다함께, 서울대교구카톨릭대학생연합회,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21c진보학생연합, 전국철학과학생회연대, 전국카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천주교글라렛학생선교회 등)

3) 장소
- 서울 도심(구체적 장소 추후 확정)

4) 집회 순서(가안)
- 연설1:한반도평화위협 전쟁정책 규탄
- 연설2: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 및 개방압력 규탄연설
- 공동투쟁결의문 채택 및 낭독
- 행사후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로

5) 주요 구호
-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 중지하라
-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2002 한반도 평화선언

한총련

1. 취 지

-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은 ≪평화선언≫ 채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를 과시함.
- 9 · 11테러사태와 아프간침공 이후 한반도에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부시에 대해 ≪전쟁반대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함.
- ≪전쟁반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남이북의 정치지도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함.

2. 행사 개요 및 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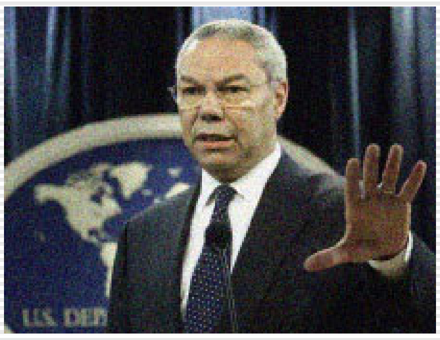
행사명 :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2002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
언 제 : 2002년 2월 18일(월) 이른 10시
어디서 : 명동 YWCA 대강당
주 최 :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2002 한반도 평화선언≫ 준비모임
참 여 : 각계 인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선언자를 조직한다.

파월 대북전쟁론배제 의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2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파월 장관이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국회 답변을 통해 ≪이북과 전쟁에 돌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

파월 장관의 그같은 발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이북을 이라크, 이란과 싸잡아 ≪악의 추축국≫이라고 경고한지 보름만에 나온 것이다.



파월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 외교. 국방. 안보 수뇌부가 잇따라 대북 경고수위를 높여온 대북 강경기조의 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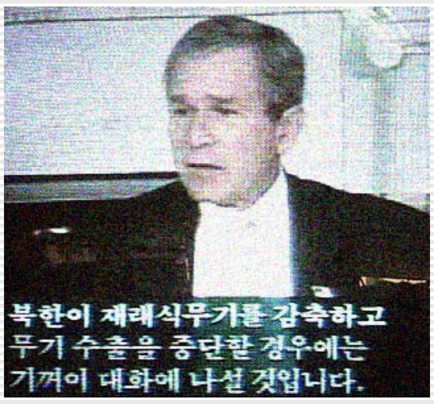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경고이후 한반도에 난기류가 조성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음 단계 테러전 대상으로 이북을 겨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됐기 때문.

파월 장관은 상원 예산위원들의 ≪악의 추축국≫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북과 이란을 이라크와 차별화한뒤 ≪이북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파월 장관은 ≪이란과도 전쟁을 할 계획은 없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그의 책상에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라크는 이북이나 이란과 달리 미국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라크를 겨냥한 여러가지 선택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테러전 확전과 관련해 여운을 남겼다.

파월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으로서 오는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북과 전쟁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 의미와 무게가 실려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경고이후 부시 행정부내 누구도 이북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예고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은 인사도 없었기 때문.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추축국≫으로 규정한 3개국 가운데 이북과 이란은 이라크와 ≪다소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구별, ≪우리는 이북과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의 이날 상원 증언은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기조보다는 대북 대화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장관이 증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이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쓰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파월 장관은 그럼에도 ≪북 체제의 본질과 위협≫에는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북 체제는 이북주민들의 권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기를 개발, 다른 나라에 이를 판매하는 체제로 부시 대통령은 바로 그같은 ≪이북체제의 본질≫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파월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우려하고 경고한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수출하고 있는 북 체제라면서 이북주민들이 언젠가 한국 국민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부시 행정부가 북 체제와 북 주민을 분리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월 장관의 한반도 전쟁배제 발언으로 일단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기류가 한 단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월 장관이 원래부터 부시 행정부내 대북 온건론자의 기수였다는 점에서 파월 장관의 발언기조가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과 조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성수특파원
연합뉴스 2002/02/13

≪주장≫

전쟁반대 수준을 넘어 강력한 반미항쟁 의지를!

리인수 주미철본 공동의장 - 2002년 2월 10일

지금 전국의 모든 시민 · 사회단체들이 전쟁반대, 미국규탄, ≪부시≫방한반대투쟁의 전선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서, 이 땅을 조국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단체는 많고 규탄의 목소리는 높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규탄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규탄의 강도가 정세의 엄중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국 놈들은 우리 민족을 여차하면 죽이려 드는데, 우리는 맨 날 하는 소리로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등의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사표현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해야≫ 한다. 전쟁반대 목소리를 뛰어넘어, 강력한 ≪반미항전≫의 의지를 나라 안팎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미국이 이 땅에서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4천만 국민은 미국과 결사항쟁을 벌이겠다≫는 의사표시 등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수백 개 단체가 모여서 이 정도의 목소리는 내야 미국과 그들의 앞잡이 정권, 이회창과 조선일보 등 모든 미국 앞잡이들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많은 단체를 모은다고 해서 미국 놈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유사시 이남의 대다수 민중이 이북과 싸우지 않고 미군에게 덤벼드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전쟁반대 수준을 넘어, 미국 놈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방도이다.

여, 이총재 방미 공세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미국 방문 직후부터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총재의 방미중 미측 인사들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마저 이 총재가 이북을 악의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주목한다≫면서 ≪이 총재가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총재는 미국측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혹시 주문했는지, 설명들었거나 감지하고 동의했는지, 감지했으되 방관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듣지도 않아 몰랐는지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 총재가 미국측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문했거나 동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알게 됐으나 방관했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묻지도 듣지도 않아 몰랐다면 외교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찬형기자
연합뉴스 2002/02/13

북미대화 결의안 여야 논란

여야는 14일 총무회담을 열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촉발된 북미 갈등의 원만한 수습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결의안의 골격과 내용 등을 조율한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대화를 통한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소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결의안의 채택시기와 이번 사태의 원인 및 진단 등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부각돼야 하며, 부시대통령의 방한전에 국회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과 외교력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하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오는 25, 26일께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맹찬형 민영규기자
연합뉴스 2002/02/13

≪대담≫

전농 정현찬신임의장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73호

◎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올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 WTO수입개방저지와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저지가 당면한 절박한 과제다. 또한 농가부채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것과 협동조합 개혁투쟁, 남북농민교류 사업도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간부양성과 교육사업을 진행해 회원들의 의식을 한층 높일 생각이다.

◎ 쌀 수입 저지를 위해 어떤 투쟁을 펼칠 것인가.

○ 정부의 2004년 쌀수입 개방에 맞서 올해 투쟁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값만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은 사라지게 된다. 민족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쌀값을 내리면 싸게 먹을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쌀문제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가적인 문제다. 쌀이 가져다주는 간접효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 전농은 올해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해 쌀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사업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연대사업을 펼칠 예정인가.

○ 우선적으로 농업관련 종사자들과 연대사업을 굳건하게 해 농산물수입개방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민중단체들과의 연대도 더욱 굳건히 가질 생각이다.

◎ 전농 대의원대회에서 정치사업방침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 단위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군단위에서 전농의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 민주노동당 재창당과 관련해 한마디 해 달라.

○ 진보정당 건설은 진보세력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함께 하는 진보정당이 되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성과와 한반도 정세

콘스탄틴 볼리소비치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대통령 극동지역 전권대표 일행의 방북은 작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 협력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시적인 성과는 우선 북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러시아 극동투자회사 사이에 ≪협조에 관한 비망록≫이 조인됐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는 점이다.

풀리코프스키 전권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이 합의한 철도연계를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이북의 경의선 연결 공사 재개 소식과 함께 TSR과 TKR 연결 및 이로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북·러간 철도연결 사업은 이미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및 김 위원장의 2001년 방러 등을 통해 가시화됐으며 남북관계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풀리코프스키 방북 직전 안드레이 카를로프 이북주재 러시아 대사는 TSR과 TKR 연결사업이 앞으로 북·러경제협력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 조선중앙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카를로프 대사는 러시아잡지 쿠르스포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기에 양국의 경제협력안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후 몇년간 TSR과 TKR 연결사업이 조·러 경제협력에서 관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양국은 또 지난해 ≪8.4 모스크바 선언≫에서도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북·러 ≪협조에 관한 비망록≫과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대통령 극동지역 전권대표의 방북은 이 철도연결 사업을 거듭 확인한 것이었다. 또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정세의 한 축인 북·미 관계 냉각과 관련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거듭 확인한 것은 두 나라가 2000년 7월 19일 조러공동선언과 지난해 8월4일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표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양국은 특히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외에 △평등과 존중, 호혜적 협조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 구조를 형성(1항) △1972년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 확인 등 새 세기 국제적 안전 강화(2항)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지지 및 외부 방해 불허(7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8항) 등을 표명, 미국에 대한 일정한 견제력을 과시했다. 또 김위원장이 풀리코프스키 전권대사 일행을 설 인사를 포함해 두 차례나 만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등 극진히 환대한 것은 지난해 말 처음 거론된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한반도평화담당 특사의 방북 지연이나 전 주한미국대사들의 방북 좌절과 대비된다.

카를로프 대사가 이달 초 회견에서 ≪북·러관계 발전과 관련해 러시아가 정책노선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며 ≪러시아와 조선은 오랜기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발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양국간 전통적 우의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북·러 협력, 특히 북·러 철도연결 의지에 대한 확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급속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욱기자
연합뉴스 2002/02/13

대선주자 인터뷰 무력저지, 선관위 앞 1인시위 전국으로 확산

선관위 행위는 언론자유 침해한 중대사안

오마이뉴스가 기획, 추진해온 민주당 경선 후보 7인의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가 선관위의 무력저지로 좌절된 것에 항의해 오마이뉴스 측이 항의시위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박윤미 시민기자는 6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종로4가에 위치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거꾸로 가는 선관위 바로잡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어 7일에는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과 시민기자 1명이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마이뉴스는 5일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를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선관위가 ≪정간법상 등록된 언론이 아니다≫라면서 5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날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선관위의 무력행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처는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오마이뉴스는 ≪대선주자 특별 열린인터뷰≫도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6일 오후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오마이뉴스가 ≪언론사≫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마이뉴스 ≪전남동부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항의 1인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동부판 제작책임자인 조호진 기자는 6일 ≪7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광양지역 독자를 중심으로 조만간 전남 순천, 광양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 항의 1인시위는 오마이뉴스 지역판이 발행되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1)

≪9월테제≫에 대한 해석 -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

차례

▶ 글을 시작하며

▶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글을 맺으며

글을 시작하며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은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업,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업이다. 나는 민족민주전선이 이 세 가지 과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여 적어도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망은 당면정세와 역량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가지 과업이 앞으로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하리라는 것은 확정적이다. 민족민주전선의 최후 승리에 대한 부동의 신념과 강인한 의지는 이러한 확정적 전망에 의해서 전선일꾼들의 심장에 생명의 기운을 뿜어준다.

지난 몇해동안 이어지고 있는 나의 사색과 집필과 강연은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 현시기 어떠한 정세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데 집중되어있으며, 그 전략적 과업이 앞으로 10년을 전후한 기간에 완수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더 투명하게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직 미흡한 성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이 글은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조국통일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조직 · 정치방침≫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발표한 ≪9월테제≫를 읽고 그 문건에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는 전략적 과업에 관하여 조금 부연하여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지난 10월 9일 전국연합 기관지 민의 편집진으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청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문제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는 모두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의 주제를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는데 집중시켰다.

두루 알려진 대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며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 남(한국)의 민주변혁역량에 의하여 지금 힘있게 수행되고 있다. 자주강령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이 수행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강령은 남(한국)의 민주변혁역량이 수행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고, 통일강령은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이 수행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사실은 민족의 자주성완성,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이라는 세 개의 전략적 과업과 반제자주역량, 민주변혁역량, 조국통일역량이라는 세 개의 역량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전략적 과업과 그것을 수행하는 역량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말은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이 서로 구분되는,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의해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

광고

PDF자료집

21세기 태양

한민전 중앙위
3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천출명장
4 민족의 수호자,백두의 천출명장
5 천출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
6 문무충효의 겸비
10 지략과 영군술
12 비범한 군사지략
13 **김정일**각하는 천출위인이시다
13 백두산은 웨친다

무적강군
14 일당백의 강군으로
21 무적강군을 키우신 특출한 실력가
22 희세의 령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의 무적강군
22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의지로 뭉친 전투대오
23 수령결사옹위는 실천의 구호
24 위대한 령장을 국방의 수위에 모신 우리 공화국은 금성철벽
25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

사회주의수호

조미대결전승리

조선노동당창건 55돌

천출명장 칭송
54 **김정일**총비서를 여러 존칭으로 높이 칭송
55 위성발사는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
56 **김정일**총비서 칭송,쏘련공산당리사회성원
56 **김정일**총비서 칭송,군사평론가
57 **김정일**총비서의 군령도업적을 칭송
57 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의 메달과 증서 수여
58 선군정치 칭송,기네안전상
58 각계에서 김정일총비서 칭송
59 **김정일**총비서 칭송
59 선군정치,인덕정치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

정론
60 **김정일**강성대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입니다
65 **김정일**장군(노동신문)

시
66 **김정일**장군(러시아작가 브레즈노보르)

청년주체주의자대오
68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닌다. 그러므로 세 가지 전략적 과업의 성격, 논리구성은 더 복잡하고 세밀한 회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9월테제≫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전략적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미 해명하였다. 이제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 그리고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문제, 그 과업을 실현하는 경로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한 층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 미흡한 이 글은 그러한 높은 단계에 들어선 민족민주전선의 이론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토론과정에 하나의 논변으로 내놓았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1)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과업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전민족적 범위에서,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게 실현하는 최대, 최상의 전략적 과업이다. 그런 까닭에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할 때 지적해야 하는 문제는 남(한국)의 자주성만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사실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남(한국)과 북(조선), 그리고 해외동포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여, 그 과업은 남(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을 제거하고, 북(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적대 · 말살 책동을 제거함으로써 한(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성원들은 물론 해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집단을 포함하는 전체 민족의 자주성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민족해방≫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자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고 있다.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은 1930년대 이후에 조선민족이 전개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과업이었으며,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민주전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업이다. 우리가 민족해방이라는 개념대신에 민족자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민족민주전선이 처해 있는 조건과 달리 한(조선)민족은 제국주의세력의 분할 · 지배정책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분단된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토분할과 민족분열을 알지 못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건과 달리, 분단이후 남과 북의 사회변혁운동의 발전수준이 서로 달라진 현실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문제를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민족자주라는 개념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그 두 개념에는 반제자주화운동의 형식과 내용에서 발생한 일정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배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전략개념이다. 민족해방은 이전 시기의 식민지적 예속이나 오늘날의 신식민지적 예속을 가릴 것 없이 제국주의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모든 형태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집단의 변혁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모든 종류의 반제자주화운동을 규정하는 폭넓은 전략개념이다.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한 뒤에도 제국주의세력이 이 지구 위에 남아있는 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은 계속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남는다.

이를테면 베트남 민족은 지난 시기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피흘려 수행하고 승리했으나,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완수한 뒤에 제기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는 시행착오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베트남 민족이 저러다가 전 세계 반제전선의 전진행로에서 낙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베트남 민족이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한 뒤에 자기들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영도할 사상, 다시 말해서 자주성에 관한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도사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한(조선)민족이 피흘려 개척하고 자기의 힘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반제자주화운동을 영도하는 사상을 한마디로 농축시킨 개념이며, 자주성에 관한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상의 핵심개념이다. 또한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개의 공고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을 수행단위로 하여 진전되고 있는 현존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지시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 앞에 높이 치켜든 민족자주의 위대한 기치는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의 반제자주화운동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킨 폭넓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민족자주라는 이 한 마디의 단어 속에는 반세기를 넘긴 지난 세월동안 파쇼감옥의 쇠창살 속에서, 교수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사라져간 남(한국) 민족민주전선의 투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고여있으며, 내 나라 흙탕물을 마실지언정 제국주의자의 코카콜라는 마시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온 북(조선)의 혁명적 인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담겨있다. 민족자주라는 이 한 마디의 단어 속에는 제국주의세력의 광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매개 민족의 자주성과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있는 전 세계 진보적 인민이 간직한 철의 신념과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내일 계속됩니다)

히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4)

주체사상 총서 5권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한 다음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수립되어 오랫동안 접촉이 없이 격폐되어 있었으며 이로 하여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 사이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게 하며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통일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제안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민족적 유대와 연계를 회복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도를 제시하여 준 현명한 방안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는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역량이 참가하여야 하며 조선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참가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참가시키고 전민족의 총의를 모음으로써만 그 거족적인 힘을 통일위업수행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방안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일위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등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는 폭넓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북과 남 사이의 신임과 이해를 두터이 하고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한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방안은 분열을 유지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막으며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안이다.